

##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평

### ■ 공연예술창작지원 분야

안산문화재단의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안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창작(1단계)과 제작초연(2단계)으로 단계별 구조를 갖춘 사업으로, 2단계 제작초연은 1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됩니다. 올해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 부문에는 총 16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의를 행정심의를 통과한 12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의를 통과한 6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1차와 2차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량평가(50%), 실행평가(30%), 성과평가(20%). 역량평가에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의 우수성과 예술가(단체)의 우수성을 살펴보았으며, 실행평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성과평가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는 총 4개 단체의 사업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전문예술가 및 단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하지 못한 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작품의 완성도가 낮아서라고 일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거나, 지원사업 주체(안산문화재단)의 특성이나 지원사업(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취지에 덜 부합했던 이유가 클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제작초연) 지원은 지난해 1단계 쇼케이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1단체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안산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예술단체로 커뮤니티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체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선감학원 사건을 무대화할 예정으로, 이러한 기존경력 및 작품의 주제(내용)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단계 지원은 3개 단체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공교롭게도 음악을 활용한 작품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몽유도원>(가제)는 무엇보다 사업의 안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이 시놉시스를 제출한 데 반해, 13월은 초고이긴 하나 완고 상태의 대본을 제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의 극단 송곳은 2020~2021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성실성을 보였던 단체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안산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리서치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이즈잇의 <하여가>는 IT기술이 접목된 융합예술 공연으로, 심사위원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단체에 신청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재단에서도 의견을 반영하며, 감액 없이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주체와 구성원께서는 모쪼록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연했던 목표치를 달성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심사위원 김일송, 신동호, 이지은